불교 생명존중·탈핵 운동 본격 'Start'

'생명·탈핵 실크로드' 준비단 11월 21일 출범

26개국 순례하며 공감대 형성
달라이라마·교황 등도 접촉
전 세계 445개 핵발전소 감시할
종교인 중심 '국제기구' 창설 목표
조계종 사회노동위 토론회도



이원영 수원대 교수〈사진〉는 '생명·탈핵 실크로드' 대장정에 나선다. 이에 11월 21일 '생명·탈핵 실크로드 준비단(이하 준비단)'을 공식 출범했다.

지난 11월 19일 경주시 남남서쪽 9km 지역서 진앙 2.1규모의 여진이 발생하며 지금까지 총 523회 여진이 기록됐다(11월 22일 기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란 말은 옛말, 지진의 강도와 횟수가 높아질수록 진앙인 경주를 중심으로 경상권에 대거 포진된 원전 안전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명윤리사상에 입각해 탈핵운동을 펼쳐온 불교계의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생명·탈핵 실크로드' 대장정에 나선다. 이는 지구촌 종교인들이 함께 2년간 약 26개국 총 1만1000km를 걸으며 탈핵과 생명가치를 전파하는 일이다. 2017년 5월 3일 부처님 오신날 서울 조계사를 출발해 일본-베트남-라오스-미얀마-인도-이란-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독일-스위스-이태리 등을 거쳐 2019년 4월 21일 부활절, 로마 바티칸에 도착한다.

주안점은 지구촌 곳곳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일이다. 인도 다람살라서 달라이라마를 만나고, 종착지인 바티칸선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탈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탈핵운동을 하며 '우리만 탈핵하면 뭐하나, 중국서 터지면 속수무책인데' 란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단 이 교수는 "탈핵은 한 나라만 잘해선 소용없다. 지구촌 445개 핵발전소 위험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제기구가 있어야한다"며 "종교계가 연합해 그 역할을 해낸다면 지구촌의 안전을 기하는 하나의 유력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에 앞서 11월 21일 '생명·탈핵 실크로드 준비단(이하 준비단)'이 공식 출범했다. 상임대표는 김영호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좌교수(前 산업자원부 장관)가 맡았으며, 김용복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장과 이선종 원불교 천지보은회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원영 교수는 준비팀장이다.

이날 자리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우리스스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선택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위험한 에너지서 안전한 에너지로, 해로운 에너지서 건강한 에너지로 바꿔 나가자. 지역을 넘고 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고 협력하자. 여러분들이 걷는 1만1000km 길이 도시와 도시의 연대를 잇고, 시민과 시민의 협력을 연결하는 길이 될 것"이라 격려했다.

한편 준비단은 내년 5월 출발 전까지 '생명·탈핵 실크로드 100인 위원회(이하 100인 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100인 위원회는 2년 간 대장정을 정신적·기능적·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참여문의는 전화(010-4234-2134) 또는 이메일(leewysu@gmail.com)로 가능하다.

아울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는 11월 21일 '지진은 말한다, 잘가라 핵발전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조 발제를 맡은 김익중 동국대 교수는 "전 세계 원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원전 개수가 많은 국가부터 차례로 발생했다"며 "다음 사고는 세계 원전 보유 개수 5위인 한국서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다. 당장 오늘밤 한국서 원전사고가 발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스위스·이태리·벨기에·대만·스웨덴은 탈핵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세계적 추세에 따라 원자력 의존도를 현재 30%대서 10%대로 낮추고,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27면〉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백우 스님 열반 1주기 기념법회

장흥 청련사, 〈법어집〉 봉정, 부도·탑비·사적비 제막식

천년고찰 청련사는 중창 대작불사를 원만회향하고 인재양성에도 헌신한 前 주지 백우 스님의 열반 1주기를 맞아 11월 19일 〈백우대종사 법어집〉 봉정식과 부도·탑비·사적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원로의원 지허 스님, 총무원장 도산 스님, 중앙종회의장 설운 스님 등 종단 스님들과 이성호 양주시장, 최종남·이종수 교수, 백우대종사 문도회 등 5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는 1부 〈백우대종사 법어집〉 봉정식과 2부 부도·탑비·사적비 제막식으로 나뉘어 개최됐다. 태고종 종정스님을 대신해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은, 법어집 간행 및 부도·탑비 조성에 남다른 열정과 노력을 기여한 청련사 주지 해경 스님과 백우문도회 대표 대각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 이종수 순천대 교수, 박한흥 삼보석재 대표, 신원식 중도기획 대표에게도 각각 감사패가 전달됐다.

백우 스님 행장보고에 이어 열반 1주기 기념법회 봉행위원회 사무총장 지홍 스님은 봉행사에서 "스님의 3대원인 도제양성, 후학양성, 총림의 건립은 청련사 뿐만 아니라 한국불교의 새로운 천년을 위한 당면과제이기에 스님의 유훈을 승계해 방일함없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백련사 회주 운경 스님은 '40년 지기' 백우 스님을 먼저 떠나보낸 안타까움을 표하며 두 분만 알고 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스님은 "법난 때 종단 절들을 잇달아 빼앗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서 이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광화문서 분신(焚身)을 약속하고 계획을 세밀히 세웠는데 정보가 새어나가 결국 소지공양만 올린 오래전 일화가 생각난다"며 "오로지 종단발전을 염원하는 애종심으로 일관한 백우 스님의 가르침을 잘 받들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청련사 백우 스님 열반 1주기를 맞아 청련사 대중들이 〈백우대종사 법어집〉을 봉정하고 있다.

보리수요양병원, 스님 전용 병실 등 확충

올해 8월부터 흑자 전환…불사기금 모연 나서



조계종이 운영하는 의료법인 동행의료재단 보리수요양병원〈사진〉이 스님 전용 병실을 확충하는 등 노인재활과 요양 서비스의 질을 개선에 나선다.

손양호 보리수 요양병원 상임이사는 11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17년 총 15억원의 비용을 들여 스님 전용 병실 2개 층을 증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인에서 40인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스님 전용 병실은 김포 용화사 설법전 상단부에 마련된다. 비구 전용과 비구니 전용 각 1개 층이며 비용 조달은 교계 모금과 신도 희사금, 기부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리수요양병원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혈액투석을 할 수 있는 15베드 규모의 인공신장실을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7년 후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리수요양병원은 현재 136억원 가량의 부채가 있다. 손 이사는 이에 대해 "70억원 정도가 적정부채로 흑자전환을 한 만큼 부채 감소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추가사업을 추진해 서울과 인천, 경기, 강원 일대에 불교계 사찰과 외부기관의 참여로 분원 설립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양호 이사는 "스님들의 고령화로 인해 암과 재활, 요양병원의 필요성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종단의 사회적 위상을 제고하고 임종 개종으로 인한 탈불자 현상에 대한 대안, 불교신도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요양병원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선혜품계, 불자 모범 돼 달라"

조계종 신도지도자 지위를 뜻하는 선혜품계에 올해 66명이 선정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은 1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서 '불기 2560년 선혜품계 품서식'을 거행했다. 이날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품수자들에게 "신행혁신의 불자상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품수자들께서 모범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민추본, 영화 '자백' 특별상영회 마련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인디스페이스 영화관서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법타, 이하 민추본)는 12월 13일 오후 7시 30분 종로3가 인디스페이스 영화관서 민주본 32차 월례강좌 일환으로 영화 '자백' 특별상영회를 개최한다.

'자백'은 2012년 탈북한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의 간첩사건을 다룬 실화 다큐멘터리다. 유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간첩혐의를 받았지만 2015년 대법원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MBC '피디수첩' 출신 최승호 PD가 감독을 맡아 한국, 중국, 일본, 태국 4개국을 넘나들며 40개월간 추적한 끝에 간첩 조작 사건의 실체를 담았다.

다큐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총 62회의 대규모 시사회를 진행하며 전국 각지의 관객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개봉 이후 최승호 감독이 직접 찾아가는 관객과의 대화는 114번이라는 대기록까지 세우며 여전히 흥행 열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민추본 측은 "영화 '자백'서 보여주는 간첩사건 또한 분단이 만든 비극이다. 우리 사회서 분단으로 겪어야하는 소모적 정책과 희생을 조명함으로써 통일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길 바란다"고 특별상영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자백' 특별상영회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민추본 회원은 무료, 비회원은 상영료 6,000원을 내면된다.

(02)720-0531 박아름 기자

백용성 대종사 총서 출간 고불식



일시 | 2016년 12월 13일(화) 10:30–

장소 | 법안정사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71)

주최 |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주관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

문의 | 대각회 사무국 : 02-2646-4975
동국대학교 전자불전문화콘텐츠 연구소 : 02-6713-5138
대각사상연구원 : 02-581-3138



한국 근대불교를 대표하는 큰스님인 백용성 대종사님의 유훈을 계승하고 있는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와 백용성 대종사님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는 대각사상연구원은 금번, 『백용성 대종사 총서』(전 20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백용성 대종사 총서』의 발간은 대각회와 용성문중 스님들 및 한국불교의 오랜 염원이었습니다.

이에, 제방에 계신 사부대중을 모시고 총서의 출판 기념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재)대한불교조계종 대각회 이사장 혜총
대각사상연구원 원 장 보광